기독교교육논총 제68집 (2021. 12. 30): 77-112
DOI: 10.17968/jcek.2021..68.003.

정신분석학적 '욕망의 주체' 이해에 기초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 개발*

김선아(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전임연구원)
kijshhs@hanmail.net

한글 초록

본 연구에서는 돌토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을 두 가지 영역에서 재구성하여 제시한다. 그 첫 번째 영역은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방향 및 이에 따른 세부목적'이다. 이 영역에서 연구자는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방향을 '주체상호적인 사랑의 소통을 위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과 '욕망의 주체를 위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한다.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방향에 따른 세부목적은 '말하는 존재로서의 주체 구성하기'와 '욕망의 자율적 원천으로서의 주체 깨닫기'로 재구성하여 제시한다.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방향 및 이에 따른 세부목적을 재구성하는 목표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주체상호적인 사랑의 소통을 이루며 사랑을 욕망하는 주체로서 살아가도록 길인도 하고자 하는 데 있다. 두 번째 영역은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과제 및 이에 따른 세부내용'이다. 이 영역에서 연구자는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과제를 '아가페적 사랑의 욕망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와 '사랑의 교육과정을 통해 전인성 형성하기'로 재구성하여 제시한다. 이에 따른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세부내용은 '아가페적 사랑의 욕망의 진실 깨닫기'와 '일상의 삶에서 아가페적 사랑 실천하기'로 재구성하여 제시한다.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 과제 및 세부내용의 재구성 목표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아가페적 사랑의 욕망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을 통해 일상의 삶에서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 이 논문은 201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수행된 제2차년도 연구과제임(NRF 2018S1A5A2A01036481).

전인적 '욕망의 주체'가 되도록 길인도 하는 데 있다. 이에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별(태아기, 영유아기, 아동기)로 돌토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실제를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물이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적 실천을 제안하고, 본 연구 결과물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및 전망을 함으로써 본 연구의 여정을 마무리 한다.

《 **주제어** 》

정신분석학적 관점, 욕망의 주체, 상호주체적인 사랑의 소통, 사랑의 존재, 아가페적 사랑의 욕망, 전인성,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재구성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의 미래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글로벌 환경은 '4차 산업혁명', '초연결 · 초지능의 기술'이 화두가 되고 있는 초기술사회이다. 이 초기술사회에서 우리의 미래세대는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의 가치관과 요구에 떠밀려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지 못한 채 주어진 삶에 순응하며 살아간다(김정준, 2021; L. Rouhiainen, 2018; Wang, J. & B. Nazi, 2020;). 이러한 삶은 심리적·실존적으로 소외된 삶을 야기하며, 우리의 미래세대에게서는 남이 원하는 삶을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와 같은 '삶의 곤경'(difficulté de vivre)을 겪고 있는 우리의 미래세대는 자기 느낌이나 욕구를 무의식적으로 억압하면서 의무감이나 당위성을 자신의 소망으로 인식한다.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심리적 현상은 스스로의 판단을 불신하거나 잠재력을 사장시키는 모습으로 드러나며, 자신의 내적 소외감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이 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한다(A. Freud, 1959; E. Fromm, 1956; 1969; 1976; F. Dolto, 1985; 1995;

1996; J. D. Nasio et al., 1994). 곧 개인의 내적 소외감이 자기 자신과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심리적 능력을 위축시킴으로써 개인으로 하여금 내면의 진실에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현상을 일으키는 개인의 내적 소외감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결핍되거나 왜곡된 모습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타인을 조종하거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고, 서로에게 무관심하여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더 나아가, 개인의 내적 소외감은 개인의 심리적인 어려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가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가정을 해체시키는 등 세대 간의 소외와 단절을 더욱 심화시키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개인이 몸담고 살아가는 학교와 교회 공동체 및 사회 전체가 갈등과 분열에 직면하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여러 연구에서 언급한 바 있다(김선아, 2017; 2018a; 2018b; 2019, 2020).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제1차년도의 연구와 연계하여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그 실제를 제시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의 미래세대가 '욕망의 주체'(sujet du désir)로서 자발적이고 아가페적 사랑을 욕망하는 '사랑의 존재'(être d'amor)로 살아가도록 길인도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돌토(F. Dolto, 1908-1988)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영역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제시한다. 그 첫 번째 영역은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방향 및 이에 따른 세부목적의 재구성'이며, 두 번째 영역은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과제 및 이에 따른 세부내용의 재구성'이다. 이에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별(태아기, 영유아기, 아동기)로 돌토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 재구성을 시도하고 그 실제를 제시할 것이다. 연구영역의 광범위성 및 지면의 제한성으로 인해 본 연구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교육방법 및 평가 영역'은 후속연구의 몫이 될 것이다.

II. 정신분석학적 ‘욕망의 주체’ 이해에 기초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 개발(1) : 교육과정의 방향 및 세부 목적의 재구성

제2장에서는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첫 번째 영역으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방향 및 세부목적을 재구성하여 제시한다. 연구자가 돌토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 방향은 ‘주체상호적인(intersubjectivité) 소통을 위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과 ‘욕망의 주체를 위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이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방향에 따른 세부목적은 ‘말하는 존재로서의 주체 구성하기’와 ‘욕망의 자율적 원천으로서의 주체 깨닫기’이다.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방향 및 이에 따른 세부목적을 재구성하는 목표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주체상호적인 사랑의 소통을 이루며 욕망의 원천이자 사랑을 욕망하는 주체로서 살아가도록 길인도 하는 데 있다.

1. 교육과정의 방향 재구성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 재구성의 첫 번째 영역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자 추구를 욕망하며, 의사소통을 요구한다는 돌토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 기초 한다. 돌토(1985; 1995; 1996)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욕망’(désir)은 역동적인 것이고, 삶의 약동이며, 내면적인 힘의 원천이다. 따라서 돌토에게 있어서 ‘욕망’은 ‘욕심내어 바라는 욕망(慾望)’이 아니라 ‘…을 하고자 바라는 욕망(欲望)’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G. Hall & F. Hivernel, 2009). 본 장에서 제시하는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방향은 ‘주체상호적인 소통을 위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과 ‘욕망의 주체를 위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이다.

1) 주체상호적인 소통을 위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

돌토는 주체를 언어의 존재이며, 말하는 존재로 이해한다. 주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언어 속에 존재하며, 언어가 없는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주체는 언어로부터 태어나고, 언어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다(M. Ledoux, 2003, 117, 367). 돌토와 라캉(J. Lacan, 1901-1981)의 정신분석학적 주제인 언어 이해를 비교해 보면, 라캉은 아이가 상징적인 관계에 돌입할 때 언어가 가능해진다고 본다. 상징적인 관계에서 비로소 아이는 어머니 품을 벗어나 법과 질서, 미래의 약속과 희망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J. A. Miller, 1981, 276). 돌토는 이와 같은 라캉의 언어 이해를 재해석하여 모든 것이 언어이고, 모든 것은 의미를 가지며, 언어는 인간과 공존하여 인간을 서로 의사소통하는 존재 즉 주체상호적인 소통의 존재로 만든다고 이해하였다. 돌토의 정신분석학적 독특성을 연구한 르두(M. Ledoux, 2003, 369)는 돌토의 언어 이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돌토가 말하는 모든 것이 '언어'이자 '의사소통'이며 '의미'라는 사실은 인간의 실존이 전 생애 동안 하나의 독특한 사실, 즉 하나의 언어 속에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에 의해 시작되고 지속된다 … 만일 인간이 언어 속에 빠져 산다면, 주체의 결과들을 생산해내는 것은 언어이다. 즉 주체는 언어의 결과이며, 최초의 재분할로부터 태어난다. 따라서 주체는 시니피앙에 예속되고, 시니피앙의 부여물로부터 떠올라야 한다.

돌토(1996, 197-198)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보면, 주체 상호적인 소통이 막히는 이유는 무의식적 투사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으로 왜곡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대상과 단절되어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힌 채 스스로 소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무의식적 투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문제 삼지 말고 자신의 삶을 문제 삼아야 한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고 자신의 내면부터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내면의 무의식적 투사에 얽매이지 않고

주체상호적인 소통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2) 욕망의 주체를 위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

인간의 수태에 대한 돌토의 독특한 정신분석학적 관점은 인간을 욕망의 주체로 이해하는 데서 드러난다. 돌토(1996, 65-77)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과의 관계를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한다. 돌토의 정신분석학적 해석에 의하면, 그 당시 관습에 따라 결혼 적령기에 들어서는 열두 살 된 딸에게 '꼬마'(petite, 한국어 성경에는 '어린 딸'로 번역)라고 부른 야이로의 모습은 소유욕에 가득 찬 사랑으로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모습은 첫째로, 딸을 자신의 왜곡된 사랑에 의존해서 수동적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아버지의 모습이다. 둘째로, 딸의 정신 신체적(psychosomatique)인 건강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아버지의 모습이다. 셋째로, 딸로 하여금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여 여성성에 생기를 불어넣는, 즉 여성적인 능력을 해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아버지의 모습이다. 돌토는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딸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무의식적인 커다란 젖먹이 표상이 된 채 아버지에게 예속되어 무의식적 고통과 질고 속에서 죽어가는 주체를 발견했다. 다시 말하면,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 사이에 일어나는 왜곡된 무의식적 역동 속에서 다음과 같은 아버지와 딸의 모습을 간파한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딸이 영원한 어린 아이로 있기를 무의식적으로 바란 아버지 야이로의 고착적인 모습, 그리고 욕망의 자율적 원천으로서의 주체를 상실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가련한 딸의 모습이다.

돌토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욕망의 주체를 위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으로 그 방향을 재구성한 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아이들이 자신들을 유난스럽게 보살펴 주는 어른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둘째, 아이들 스스로 자율성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의 의존적인 상태를 즐기는 어른들과 거리두기를

권한다. 셋째, 어른들이 자신들의 왜곡된 욕망이나 사랑에 아이들을 종속시키는 것을 지양한다. 넷째, 아이들이 부모에게 예속된 삶에서 벗어나 욕망의 자율적 원천으로서의 주체를 회복하게 한다. 다섯째, 아이들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그 욕망이 자아낼 수 있는 위험을 혼자 겪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세대가 '욕망의 주체'로서 스스로 모험하는 삶에로 나아가게 길인도 할 것이다.

2. 세부목적의 재구성

위에서 제시한 '주체상호적인 소통을 위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과 '욕망의 주체를 위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 방향에 따라 재구성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세부목적은 '말하는 존재로서의 주체 구성하기'와 '욕망의 자율적 원천으로서의 주체 깨닫기'이다.

1) 말하는 존재로서의 주체 구성하기

돌토에게 있어서 주체의 탄생은 단지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구조 속으로 진입하는 문제이다. 이 지점에서 돌토가 인간의 분만은 언어적이고 상징적이며, 아이의 몸은 부모의 역사를 말하는 언어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체와 언어에 대한 돌토의 관점은 "인간은 언어에 의해 취해지고 왜곡되는 주체"라는 라캉의 관점(J. A. Miller, 1981, 276)과 다른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주제인 주체의 소외와 분리는 돌토의 정신분석학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재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돌토(1996, 43, 71, 208, 339, 349)의 정신분석학적 주제는 "언젠가 자기 욕망의 몸을 취하게 되는 주체", "언제나 관계의 요구 속에 있는 주체"이다. 이 주체의 정체성은 대상을 소유하여 자신에게 가두려 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끝없이 소통하려고 하는 주체상호적인 소통의 욕망이다(M. Ledoux,

2003, 371). 라캉과 돌토의 이러한 차이는 라캉에게서는 돌토가 중시하는 언어(상호작용적인 언어, 의사를 전달하는 언어, 하나의 역사로서 사실인 언어)의 가치가 평가절하 되고 있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

2) 욕망의 자율적 원천으로서의 주체 깨닫기

돌토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은 인간을 수태되는 순간부터 언어에 속하는 주체로 보는 관점, 즉 인간을 수태 당시부터 욕망의 자율적 원천으로 보는 관점에 기초해 있다. 언어의 존재이자 욕망의 자율적 원천인 주체에게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내면적인 힘이 있다. 이 내면의 힘이 곧 욕망이다. 주체에게 무언가를 추구하게 하는 내면적인 힘, 곧 욕망이 고갈되면 그 내면은 텅텅 비어가게 되어 무기력하게 된다. 결국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게 되고, 그 어떤 것도 시도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 돌토는 욕망의 원천이 고갈된 이때에 중요한 사람의 현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중요한 사람의 현존은 '지각의 중재자'이자 '분별력과 인간화의 형성자' 역할을 하며, '사랑의 욕망의 담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사람의 현존은 욕망의 자율적 원천인 주체가 당당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체로 하여금 모험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J. D. Nasio et al., 1994, 251, 268). 위의 내용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교육과정의 방향 및 세부목적의 재구성

교육과정의 방향	교육과정의 방향에 따른 세부목적 및 핵심어
우리의 미래세대가 '주체상호적인 사랑의 소통을 욕망하는 주체', '욕망의 자율적 원천인 주체'로서 사랑을 욕망하는	1. 말하는 존재로서의 주체 구성하기 • '언어 속에 존재하는 주체' • '주체상호적인 사랑의 소통을 욕망하는 주체'
	2. 욕망의 자율적 원천으로서의 주체 깨닫기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도록 길인도 한다.	• '관계의 요구 속에 있는 주체' • '중요한 사람(지각의 중재자, 분별력과 인간화의 형성자, 사랑의 욕망의 담지자)의 현존'

III. 정신분석학적 '욕망의 주체' 이해에 기초한 사랑의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2) : 교육과정의 과제 및 세부내용의 재구성

제3장에서 연구자는 돌토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 기초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 재구성의 두 번째 영역으로, 교육과정의 과제 및 세부내용을 재구성하여 제시한다. 연구자가 제시하는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 과제는 '아가페적 사랑의 욕망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와 '사랑의 교육과정을 통해 전인성 형성하기'이다. 이와 같이 재구성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과제에 따른 세부내용은 '아가페적 사랑의 욕망의 진실 깨닫기'와 '일상의 삶에서 아가페적 사랑 실천하기'이다.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 과제 및 세부내용의 재구성 목표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아가페적 사랑 안에서 전인성을 형성하고, 일상의 삶에서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는 '욕망의 주체'와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도록 돕는 데 있다.

1. 교육과정의 과제 재구성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 재구성의 두 번째 영역은 라캉과 구별되는 돌토의 독특한 정신분석학적 관점에 기초 한다.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밝힌 라캉과 달리, 돌토는 복음서 이야기를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하여 책을 출간한 그리스도인이다. 돌토(1996)에 의하면, 자신 안에 있는 결핍을 채우려는 갈증

속에서 진정한 욕망을 체험한 '욕망의 주체'이다. 이 주체는 '타자 추구를 욕망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아가페적 사랑을 욕망하는 존재'라는 특성을 갖는다. 인간주체를 '아가페적 사랑을 욕망하는 존재'로 이해하는 돌토의 정신분석학적·신앙적 관점에 기초하여 재구성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과제는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을 아가페적 사랑의 욕망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와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을 통해 전인성 형성하기'이다.

1)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을 아가페적 사랑의 욕망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사랑의 교육은 전인격적 교육이어야 한다. 연구자가 제1차년도 연구에서 사랑의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한 바와 같이, 사랑의 교육은 미래세대로 하여금 사랑을 욕망하는 주체가 되어 타자를 향한 사랑의 욕망을 따라 타자와 더불어 아가페적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인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아가페적 사랑의 욕망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러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은 우리의 미래세대가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억압한 채 핑계와 합리화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자유와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삶에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2)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을 통해 전인성 형성하기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언어 영역에서, 어머니에게 결여되어 있는 상징적 기능을 하는 '아버지의 이름'은 어머니와 아이가 쾌락을 유지하게 하는 이자관계를 종식시킨다. 그럼으로써 고착된 이자관계로 인해 아이가 받은 정신적 상처와 금지들, 불안들, 죄의식을 극복시킨다. 이와 같이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언어 영역에서 아이는 욕망의 주체로서 내면 깊은 곳에 은폐되어 있는 '사랑의 욕망'의 진실에 이를 수 있다. 아이가 사랑의 교육과정

을 통해 비로소 '사랑의 욕망'의 진실에 이르게 될 때, 아이는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전체성을 '사랑의 욕망' 안에서 성찰하게 된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아이는 '아가페적 사랑의 욕망의 진실'을 깨닫게 되고, 부분적 욕구(besoin)가 아닌 전체적인 욕망(désir) 안에서 전인적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

2. 교육과정의 과제에 따른 세부내용의 재구성

위에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과제를 돌토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제시한 '아가페적 사랑의 욕망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와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을 통해 전인성 형성하기'에 따른 세부내용은 '아가페적 사랑의 욕망의 진실 깨닫기'와 '일상의 삶에서 아가페적 사랑 실천하기'이다.

1) 아가페적 사랑의 욕망의 진실 깨닫기

무의식에서 상상적인 양자관계는 근친상간적이다. 이런 밀착된 근친상간적 상황이 불러오는 갈등과 치명적인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이름'(non du père)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라캉의 정신분석학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매우 중요하다. 라캉의 정신분석학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오이디푸스적 삼자구도 속에서 질서를 세우며, 언제나 현재 행하는 법의 원리가 된다. 즉 동일시를 만드는 확고한 언표들은 차단된 대타자 속에, 법을 지지하는-모성적인 것의 해독제로서의 법- '아버지의 이름' 속에 위치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개입으로 아이는 자기 어머니의 상상적 남근의 위치에서 남근을 소유하기 위한 다른 위치로 옮겨간다. 그것은 연대기적인 시간 속으로 침입하지 않는다(J. Lacan, 2013; M. Ledoux, 2003, 368).

돌토(1996, 213, 229, 337)에 의하면, 아버지는 오이디푸스적 삼자구도 속에서 하나의 이름(non)이자 하나의 언어, 금지의 기표(signifiant)이다. 다

시 말해, ‘아버지의 이름’은 아이와 이자구도 속에 있는 상상계(Imaginaire)의 어머니에게 결여된 상징계(symbolique)의 시니피앙이다. 이 상징계에서 엄마인 그녀는 그녀에게 아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non)과 그녀는 '다른 대상을 욕망한다는 것'(non)을 암시한다. 그럼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은 상징계에서 아이가 어머니에게 더 이상 성적으로 종사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삼자관계인 상징계에서 아버지는 제3의 축이 된다. 이 제3의 축은 어머니와 아이의 쾌락을 차단하고, 시니피앙의 영역을 열어놓는다. 또한 오이디푸스적 삼자구도인 상징계에서 아버지의 위치, 그의 등장, 눈길, 어머니가 그에게서 찾는 감정의 보완 등을 담지 한다. (M. Ledoux, 2003, 367-369).

2) 일상의 삶에서 아가페적 사랑 실천하기

우리의 미래세대가 부분적인 욕망에 매달려 몸의 욕구(besoin) 충족에 사로잡혀 버릴 때, 자신은 물론 자신이 관계 맺고 있는 타자도 부분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 그럼으로써 타자를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며, 타자와 더불어 진정한 나눔도 갖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부분적인 쾌락 밖에 얻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의 미래세대가 부분적인 욕구 충족에 사로잡히지 않고 전인적인 욕망을 실현시키고 타자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사랑의 능력을 방해하는 결핍(manque)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룬 돌토(1995; 1996)는 우리 삶에 늘 따라다니는 어떤 결핍을 채우려는 갈증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신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즉 인간존재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근본적인 결핍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본 돌토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지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열어놓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할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결핍과 직면함으로써 내적 결핍을 채우려는 갈증을 체험하게 되는 신앙의 영역에 들어서게 되며, 이러한 체험을 통해 비로소 욕망의 진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돌토

의 정신분석학적 통찰을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연구 작업은 사랑의 결핍과 그 갈증을 신앙적 영역 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정신분석학적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이 전인 교육적 가치를 지닌 동시에 신앙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 내용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교육과정의 과제 및 세부내용의 재구성

교육과정의 과제	교육과정의 과제에 따른 세부내용 및 핵심어
우리의 미래세대가 아가페적 사랑의 욕망 패러다임에 기초한 사랑의 교육을 통해 아가페적 사랑의 욕망의 진실을 깨달아 '타자 추구를 욕망하는 존재'이자 '아가페적 사랑을 욕망하는 존재'로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전체성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길인도하며, 일상의 삶에서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전인적 존재가 되도록 돕는다.	1. 아가페적 사랑의 욕망의 진실 깨닫기 • '어머니와 아이의 쾌락' : 정신적 상처와 금지들, 불안들로 인한 죄의식 • '아버지의 이름' : 결핍의 시니피앙 • '아가페적 사랑의 욕망의 진실' : 몸과 마음과 영혼의 전체성
	2. 일상의 삶에서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적 존재가 되기 • '타자 추구를 욕망하는 존재' • '아가페적 사랑을 욕망하는 존재' • '아가페적 사랑의 실천'

IV. 정신분석학적 '욕망의 주체' 이해에 기초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 개발의 실제 : 생애주기별 재구성

제4장에서는 생애주기별(태아기, 영유아기, 아동기)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 재구성의 실제를 제시한다. 교육학을 비롯한 정신분석학 ·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 정신 및 삶의 토대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동기에 거의 완성된다. 따라서 태아기부터 아동기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안에는 제2장과 제3장에서 제시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 재구성의 핵심내용이 보편적·포괄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1. 태아기

1) 교육과정의 방향 재구성의 목표 및 이에 따른 세부목적

태아기의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방향 재구성의 목표는 태아가 수태 순간부터 몸을 가지는 주체이자 생명을 욕망하는 존재임을 알도록 하는 데 있다.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방향 재구성에 따른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태아는 수태 순간부터 몸을 가지는 주체임을 알기

주체가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주체가 몸과 만나게 된다는 것일까? 주체는 태아를 만들기 위해 생성되는 최초의 세포들 속에 있고, 시간과 공간의 교차로 안에 있다. 주체는 '나'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 존재한다.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드와 생생하게 결합하려는 욕망이 있다. 아기가 '몸'으로, '되어가는 나'로 자신을 떠맡기 위해서는 육체적이고 언어적인 요소를 부여받아야 한다. 자폐아의 예를 들면, 자폐아의 '몸'이 주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되어가는 나'로 발전되어가지 않는 것은 그 주체에게 '되어감'의 요소인 언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몸' 안에 담긴 주체는 몸이 소멸되면서 해방된다. 비록 죽음이 '자아'나 '몸'을 건드릴 수 있을지라도 '주체'를 건드리지는 못한다는 것이 돌토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이다(M. Ledoux, 2003, 134).

(2) 세상에 태어남은 아버지, 어머니, 주체(아이)의 욕망이 육화된 것임을 깨닫기

어머니-아버지-아기의 삼각관계는 수태 때부터 시작된다. 수정은 이미 삼각관계의 시작이며, 탄생은 생명과 욕망의 힘이 이어지는 순간이다. 세상에 태어남은 아버지, 어머니, 아기 주체(Infans)라는 세 사람의 욕망이 육화된 결과이다. 즉 어머니의 욕망과 아버지의 욕망, 그리고 신체 속에 들어오려는 아기 주체의 욕망, 이 세 가지 욕망이 만난 결과이다(J. D. Nasio et al., 1994, 254). 수태를 삼자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돌토는 임신에서 부모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간에 욕망하는 존재, 즉 아기주체는 몸을 취한다고 말한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두 명의 타자를 매개로 욕망의 언어적 존재가 되기 위해 육신을 취한다는 것이다(M. Ledoux, 2003, 104).

(3) 생명을 '욕망하는 존재'는 부모가 아니라 태어나는 아기임을 깨닫기

돌토에 의하면, 주체는 출발부터 수태에서부터 존재하는, 존재를 떠받치고 있는, 존재를 초월하고 있는 어떤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역동적인 하부구조, 몸으로 태어나고자 하는 하나의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생명을 욕망하는 존재는 태아 생활이 시작될 때부터, 엄마 신체의 일부가 아니다. 생명을 욕망하는 존재는 이미 독립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생명을 주고 유지하는 능력을 부모의 욕망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중재로 생명을 취하고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오직 생명을 욕망하는 그 자신이다. 따라서 각각의 아기 주체만이 자신의 삶의 욕망으로서 스스로 생명을 획득한다. 이것이 수태와 출생에 대한 돌토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이다. 이를 통해, 인간주체를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과 오랜 인내로 마침내 바깥세상으로 나오는 생명자체로 인정하고자하는 돌토의 정신분석학적 인간이해를 확인할 수 있다(M. Ledoux, 2003, 104-105).

2) 교육과정의 과제 재구성의 목표 및 이에 따른 세부내용

태아기의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과제 재구성의 목표는 첫째로, 태아시기부터 의사소통을 하는 태아가 존재와 몸 사이의 공감대를 이루는 말의 영역으로 진입하여 어머니 뱃속에서 부모와 사랑의 의사소통을 하도록 돕는 데 있다. 둘째로는, 주체가 사랑의 말에 의해 건강해지고, 치유되도록 돕는 데 있다.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과제 재구성에 따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태아가 육체적이고 언어적인 요소를 부여받도록 돕기

돌토에 의하면, 태아는 임신 순간에 두 심리 주체의 만남으로 풍부해진 말들(parole)이다. 그것은 그의 존재와 인격에 상징적인 방식으로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자신의 태반을 상실하게 되고 치명적인 가능성을 가진 과거에 억류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 돌토는 '상징계'와 출생 이전에 존재하는 '시니피앙'이라는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주제를 발견하여 아동정신분석 사례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라캉과 돌토가 강조하는 언어는 언어학자들이 이해하는 언어와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해, 라캉과 돌토에게 있어서 말들(parole)속에 있는 언어(signifiant)는 태어나려는 인간 존재의 심장과 상징적인 것 속에서 더 잘 발아되고 더 잘 수정되는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M. Ledoux, 2003, 104).

(2)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말의 영역에 진입하도록 돕기

태아가 존재와 몸 사이의 공감대를 이루는 말의 영역으로 진입하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사랑의 말을 소통하도록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태아기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만일 생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명명된 상징적 정체성, 즉 말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아이가 태반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은 것과 같은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아이의 태반은 바로 그러한 언어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M. Ledoux, 2003, 104).

(3) 태아가 무의식적·정신적 억압에서 자유 하도록 사랑의 의사소통으로 돕기

돌토는 아버지와 어머니, 아이의 만남의 열매인 출생의 상징성을 강조한다. 낳아준 부모는 바로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고, 두 사람 사이의 만남을 처음부터 내적 가정이라고 명명한다고 선포한다. 이런 내적 가정에서 엄마는 내부에 있는 세상과의 관계이며(연속적인 시간), 아빠는 떠나가기 연습을 하는 세상과의 관계이다(툭툭 끊어지는 시간). 이런 관계를 통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의 의사소통은 아이를 역동적으로 만들며, 뿌리내리게 하며, 자기 정체성을 세우게 한다는 것이다(M. Ledoux, 2003, 100, 118). 태아는 임신한 어머니의 생각에 동일시된다고 본 돌토는 아이를 하나의 계보 속에 등록시키는 일을 매우 중시한다. 더 나아가 태아가 가계의 억압된 단편들이 가져오는 무의식적 · 정신적 억압에서 자유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일들은 사랑의 의사소통으로만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돌토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이다(M. Ledoux, 2003, 121). 이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태아기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육과정의 방향	교육과정의 방향에 따른 세부 목적
태아가 수태 순간부터 몸을 가지는 주체이자 생명을 욕망하는 존재가 되도록 길인도 한다.	1. 태아는 수태 순간부터 몸을 가지는 주체임을 알기. 2. 세상에 태어남은 아버지, 어머니, 주체(아이)의 욕망이 육화된 것임을 깨닫기 3. 생명을 욕망하는 존재는 부모가 아니라 태어나는 아기임을 깨닫기
교육과정의 과제	교육과정의 과제에 따른 세부내용
태아가 말의 영역으로 진입하여 어머니 뱃속에서 부모와	1. 태아가 육체적이고 언어적인 요소를 부여받도록 돕기 2.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존재와 몸 사이의 공감대를 이루는 말의 영역에 진입하도록 돕기

사랑의 의사소통을 하도록 돕는다.	3. 태아가 무의식적 · 정신적 억압에서 자유 하도록 사랑의 의사소통으로 돕기.

2. 영유아기

1) 교육과정의 방향 재구성의 목표 및 이에 따른 세부목적

영유아기의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방향 재구성의 목표는 영유아가 결핍의 시니피앙인 아버지의 이름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도록 길인도하는데 있다.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관계의 요구 속에 있는 존재인 영유아를 위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방향 재구성에 따른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태어나는 순간부터 언어 속에 존재하는 주체 이해하기

돌토는 어머니의 얼굴이 주체의 존재를 구성하는 일종의 거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주체에게는 거울의 메아리인 소리라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들은 최초의 말들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아기에게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말을 통한 공감이자 말하려 하고, 들으려 하는 충동의 발동이다. 돌토는 유아와 어머니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말 세탁'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중요한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형식을 넘어서는 말 존재와 몸 사이의 공감이고, 주체 사이에 깊이 느껴진 연대이다. 이를 통해 개체화된 몸의 분리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돌토는 아동정신분석 실천 현장에서 아이들, 심지어 젖먹이들까지 말을 이해하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는 알 수 없었으나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말할 때, 그리고 아이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관련된 사실들을 말할 때 아이들에게는 그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였던 것이다(J. D. Nasio et al., 1994, 266-273).

(2) '자기 자신-타자'에 대한 기억과 최초의 자기애적 안전감 창조하기

갓난아기는 아주 빨리 그의 기억 속에 듣고, 냄새 맡고, 본 것들의 지각들을 축적한다. 자신의 감각이나 지각의 다양성에 응답받지 못하면 신생아는 신뢰를 경험하지 못한다. 어머니가 없으면 갓난아기는 그의 준거들을 잃게 되고, 버려진 것과 같다(잃어버린 대상은 또한 사라진 주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머니가 다시 나타나 그 존재의 연속성을 재구성하면 다시 근원을 찾는다. 갓난아기는 아주 빨리 그의 기억 속에 듣고, 냄새 맡고, 본 것들의 지각들을 축적한다. 이런 것들 덕분에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부재를 견딜 수 있게 되고, 이러한 현존과 부재의 변증법은 갓난아기가 비약적으로 정신적 발달을 이루게 한다. '없다가 있고, 있다가 없는' 고독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아 가는 갓난아기시기에 인간 상호간의 실질적인 의사소통의 결함이나 정신적인 의사소통의 결함이 생기게 되면, 상징적 · 정신적 죽음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J. D. Nasio et al., 1994, 255).

(3) 대타자(Autre)의 욕망에의 동일시 중재하기

주체에게 자신의 몸을 잊게 만들고, 자기 존재를 잊게 만드는 향유는 엄마로부터 온다. 예를 들어, 엄마는 아이가 배고플 때 배를 채워주며, 아이가 불안할 때 위로해 준다. 이 때, 아이는 마치 엄마가 된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아이가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엄마이다. 아이는 엄마의 지나친 정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엄마에게 쾌락을 주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돌토는 태아생활에서 어머니는 연속성의 역할을 하고, 아버지는 불연속성의 역할을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문화적인 양식이나 관습에 상관없이,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데 동의한다. 예를 들어, 젖병을 물리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해도, 돈벌이를 하러 나가는 사람이 어머니라고 해도, 아버지가 '엄마'가 되고, 어머니가 '아빠'가 된다고 해도 이 사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신분석에서 어머니는 아기에게 자기 자신-타자의 기억을 만들어내는 지속적인 관계 속의 후견인이며, 아버지는 어머니

와 아이의 양자관계 속에 있는 아버지라는 제3의 상징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M. Ledoux, 2003, 61, 99, 106).

2) 교육과정의 과제 재구성의 목표 및 이에 따른 세부 내용

영유아기의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 과제 재구성의 목표는 영유아로 하여금 사랑의 능력을 방해하는 결핍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몸과 마음과 영혼의 전체성을 이루도록 돕는 데 있다.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과제 재구성에 따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결핍을 채우는 남근적 존재라는 족쇄에서 영유아를 해방시키기

대상의 역할과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온 대상관계 정신분석학파에서는 영유아기에 형성되는 최초의 정서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적했다. 예를 들어, 안아주기, '충분히 좋은 엄마'의 역할 등이다. 라캉은 이러한 정신분석학 사조는 아이가 어머니의 대상으로 처신하는 상황으로 밀어 넣기 때문에 아이로 하여금 자신이 어머니의 결핍을 대신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여 어머니의 남근이 되려고 하는 곤경에 빠뜨린다고 보았다. 즉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대타자(Autre)의 욕망에의 동일시에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라캉은 중재자적 존재의 개입이 요구되는 지점을 주목한다. 즉 아버지가 아이와 어머니 사이에 개입하면서 어머니의 결핍을 채우는 남근적 존재라는 족쇄에서 아이를 해방시키게 되는 지점에 주목한다. 이 지점에서 아버지는 아이에게 어머니를 금지시키고, 어머니에게 아이를 금지시킴으로써 아이는 그 박탈을 수용하고, 상징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이에게 거세가 일어나는 지점인 아버지의 법과의 만남이다. 돌토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거세는 새로운 존재 방식을 만들어내는 변화의 시련으로, 더 큰 향유를 향한 욕망의 조화와 향상을 가져 오는 금지이다(M. Ledoux, 2003, 127). 거세는 신뢰와 존중, 그리고 올

바른 말에 의해서 이행되고 극복되는 것이라는 돌토의 관점은 라캉과 비교해 매우 독특하다.

(2) 언어적이고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주체의 실존을 삼각구조 속에 연결시키기

아이의 무의식의 아버지는 엄마의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엄마의 옛 무의식적 태도, 그리고 엄마가 자신의 형제나 아이의 아버지와 맺는 관계에 예속된다. 아버지는 그가 전달하는 성으로 아이를 역사 속 가계에 뿌리내리게 하고, 아이를 사회에 등록시키는 기록자이다. 이러한 삼각구조 속에서 남근적 자부심의 배달부인 아버지는 정체성을 부여받는 과정을 거치는 어린 소년의 나르시스적 지주가 된다. 주체의 실존이 어머니와 아이, 그리고 아버지라는 삼각구조에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돌토는 라캉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이름(성)이 갖는 정신분석학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언어적이고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주체의 실존을 그의 부모의 오이디푸스에 연결시키는 아버지의 이름(성)은 주체의 생식성과 공존재적이고, 오이디푸스적 자아의 구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주장은 라캉과 공통된 정신분석학적 관점이다(Ledoux, 2003, 67, 102).

(3) 영유아가 경험한 현실과 관련된 말을 통해 사랑의 능력과 자기 존중감 키우기

돌토는 아이가 5-6세까지, 적어도 2세까지는 지속적인 존재 감정과 주변으로부터 안정된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잃어버린 대상은 또한 사라진 주체이기도 하다. 어머니가 없으면 갓난아기는 그의 준거들을 잃게 되고, 버려진 것과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다시 나타나 그 존재의 연속성을 재구성하면 다시 근원을 찾는다. 이런 것들 덕분에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부재를 견딜 수 있게 되며, 없다가 있고 있다가 없는 것으로 고독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아간다(J. D. Nasio, 1994, 255).

아이가 6개월 이전에 엄마와 분리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하고, 엄마냄새가 배어 있는 옷감 같은 것을 아기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한다. 엄마의 결핍, 즉 생애 초기에 이루어진 엄마로부터의 분리는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환경의 변화-공간의 변화, 생활 리듬의 변화, 친숙한 사람이나 목소리의 변화-가 아이에게 설명되지 않을 때, 아이의 심리적 외상과 상심의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부재는 아이의 정신구조 속에 내재화될 수 있으므로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재의 이유를 아이에게 말해주고, 아버지는 그가 부재하는 이유를 아이에게 말해주어야 한다. 즉 부모 모두 아이가 아버지의 현실적인 부재 속에서도 정신적으로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말해주어야 한다. 낳아준 부모가 길러주는 부모가 아닐 경우에는 낳아준 부모의 품위에 대한 말을 해줌으로써 아이의 무의식적 · 정신적 건강을 지켜주어야 한다. 아이는 말을 통해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왜곡시킨 현실에서 자유 할 수 있게 되고, 비록 부모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살아온 아이일지라도 사랑의 능력과 자기존중감을 키울 수 있다. 이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영아기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육과정의 방향	교육과정의 방향에 따른 세부목적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관계의 요구 속에 있는 존재인 영유아가 결핍의 시니피앙인 '아버지의 이름'을 필요로 하도록 돕는다.	1. 태어나는 순간부터 언어 속에 존재하는 주체 이해하기 2. '자기 자신-타자'에 대한 기억과 최초의 자기애적 안전감 창조하기 3. 대타자(Autre)의 욕망에의 동일시 중재하기

교육과정의 과제	교육과정의 과제에 따른 세부내용
영유아의 사랑의 능력을 방해하는 결핍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몸과 마음과 영혼의 전체성을 이루도록 돕는다.	1. 어머니의 결핍을 채우는 남근적 존재라는 족쇄에서 영유아를 해방시키기 2. 이를 위해 언어적이고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주체의 실존을 삼각구 조 속에 연결시키기 3. 영유아가 경험한 현실과 관련된 말을 통해 사랑의 능력과 자기 존중감 키우기

3. 아동기

1) 교육과정의 방향 재구성의 목표 및 이에 따른 세부 목적

아동기의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 방향 재구성의 목표는 아동이 부모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게 하며, 사랑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랑의 말'에 자신의 삶을 노출하도록 길인도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아동기의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과제 재구성 목표에 따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무의식적 불안과 질투로 인한 금지의 '망'(réseau)에서 벗어나기

아동기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무의식적 불안에 갇힌 부모는 자녀가 주도적으로 자유를 행사하려고 할 때 자녀를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자녀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녀의 삶의 주도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자신이 누리지 못한 자유를 자녀가 누리는 것에 대해 질투를 느끼는 부모는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하고자 자녀를 여러 가지 금지의 '망' 안에 가두어 놓고 자녀의 행동 하나 하나를 끈질기게 간섭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자녀는 부모의 통제와 간섭을 거부하는 것은 곧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버린다. 이러한 죄책감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가 덫을 놓은 금지의 '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다. 그 결과, 자녀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더욱 불행한 것은, 부모의 일방적인 양육방식에 순응하여 그것을 스스로 내면에 강화시켜 부모에게 예속된 삶을 살아간 자녀는 결혼 적령기에 이르러서도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Dolto, 1996, 67-70).

(2)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에 진정한 의미부여하기

자신의 내면의 결핍을 마주할 수 있을 때, 아동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잘못과 결점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며, 외부의 것들을 통해 내면의 결핍을 채우려고 애쓰지 않게 된다. 또한 아동은 자기 자신에게 부족한 것과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헛된 희망도 품지 않게 된다. 이런 희망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의 미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동이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의 결핍과 진실하게 마주할 때이다. 이때 비로소 아동은 자신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Dolto, 1996, 72-73).

(3) '사랑의 말'에 노출시켜 사랑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사랑의 말'은 내면의 욕망을 일깨워 주고, 그 삶이 사랑 안에서 활짝 피어나게 한다. 또한 '사랑의 말'은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아이의 자리를 되찾게 하여 욕망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F. Dolto, 1996, 74). 돌토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 의하면, 진정한 사랑은 그 대상을 소유하려 하지 않으며, 마음을 터놓고 진정으로 대상과 의사소통하게 한다. 따라서 사랑한다는 것과 의사소통한다는 것은 자기교만에 사로잡힌 채 폐쇄 회로 안에 갇혀서 사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일이다. 아동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아동이 자발적으로 진정한 사

랑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자연스럽게 '사랑의 말'에 노출시켜 사랑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2)교육과정의 과제 재구성의 목표 및 이에 따른 세부내용

아동기의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과제 재구성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아동이 무의식적 투사에서 벗어나 내면의 결핍과 마주하여 진정한 '사랑의 욕망'(désir d'amor)을 만나게 하는 데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럼으로써 아동이 자신을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 개방하여 일상의 삶을 통해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아동기의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과제 재구성 목표에 따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결핍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믿는 무의식적 투사에서 벗어나기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무의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자녀 스스로 자신의 것을 채워나가도록 격려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의 결핍을 마주할 수 있게 한다. 반면에, 자녀에게 부모 자신의 것,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려 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채우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부모의 양육방식을 돌토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부모가 부모의 것으로 채우고자 열심을 내는 양육방식 속에서 자란 아동은 자신의 내면의 결핍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믿는 무의식적 투사에 갇히고 만다. 다시 말해, 부모의 잘못된 양육방식으로 인해, 아동은 자신의 내면의 결핍을 무의식적으로 부인하게 된다. 이러한 무의식적 과정 속에서 아동은 그 결핍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는 무의식적 투사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된다. 이 악순혼의 고리에서 벗어나 내면의 결핍과 마주하여 진정한 '사랑의 욕망'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녀 스스로 자신의 것을 채워나가도록 격려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2)거세를 통해 자신을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 개방하기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아가페적 사랑'의 독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예수님은 '아가페적 사랑'의 실천을 위해 '사랑의 욕망' 안에서 거세를 행하셨다. 둘째로, 예수님은 자기애적 동기에서 타자에게 고착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실천하신 '아가페적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었다.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과제 재구성의 목표를 이해하기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거세의 중요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거세를 통해 행하신 아가페적 사랑의 실천은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모범이 되기 때문이다. 돌토(1996, 80)는 예수님이 똑같은 욕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을 수 있도록 첫 번째 대상을 죽이신 것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거세의 예를 든다. 돌토(1996, 81-86)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 의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거세는 사랑의 욕망을 제일 처음 불러일으키게 했던 존재와 헤어지고 분리됨으로써 새로운 존재방식을 만들어내는 변화의 시련이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에서도 스스로 거세하셨다. 집주인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에게 느꼈던 사랑 속에 남아있던 육체적인 것들을 모두 거세하셨던 것이다. 또한 예수님의 거세는 오직 신뢰와 존중과 올바른 말에 의해서만 이행되고 극복되었다. 실례로, 예수님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으려 하고, 어머니와 근친상간적인 관계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나인 성 과부의 외아들의 항문기적 욕망을 신뢰와 존중의 말로 거세시키셨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자기애적 동기에서 타자에게 고착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셨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하셨다는 점이다. 돌토(1996, 88-89)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아가페적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님을 강조한다. 예수님의 '아가페적 사랑'은 주체상호적인 사랑의 의사소통에 기초한 '사랑의 욕망'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의 욕망'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아가페적 사랑'의

실천은 이웃과 나누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깨닫게 한다.

(3)일상의 삶을 통해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돌토가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해석한 예수님의 '아가페적 사랑'의 실천이 아동기의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 과제 및 세부내용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아동이 친구와 이웃에게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 둘째로, 아동이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한다. 셋째로, 아동이 '아가페적 사랑'의 욕망 안에서 사랑을 할 때, 자신이 베푼 것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게 되고, 또 감사를 되돌려 받으려는 기대도 하지 않게 된다. 나의 도움을 받은 그들 덕분에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도움을 베푼 그들에게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가페적 사랑의 욕망 안에서 실천한 사랑은 아동이 하나님과 무의식적으로 사랑의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사랑의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하게 한다. 더 나아가, 진정한 '사랑의 욕망' 안에서 자신을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 개방한 아동은 자신의 일상의 삶을 통해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아동기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육과정의 방향	교육과정의 방향에 따른 세부목적
아동으로 하여금 부모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게 하며, 사랑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랑의 말'에 자신의 삶을 노출하도록 길인도 한다.	1. 부모의 무의식적 불안과 질투로 인한 금지의 '망'에서 벗어나기 2.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에 진정한 의미부여하기 3. '사랑의 말'에 노출시켜 사랑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교육과정의 과제	교육과정의 과제에 따른 세부내용
아동으로 하여금 무의식적 투사에서 벗어나 내면의 결핍과 마주하여 진정한 '사랑의 욕망'을 만나게 함으로써 자신을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 개방하여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돕는다.	1. 자신의 결핍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믿는 무의식적 투사에서 벗어나기 2. 거세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욕망' 안에서 자신을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 개방하기 3. 일상의 삶을 통해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V. 나가는 말

연구자는 제1차년도의 "정신분석학적 '욕망의 주체' 이해에 기초한 사랑의 교육 연구"와 연계하여 제2차년도 연구에서 돌토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그 실제를 제시하였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연구자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욕망의 주체'로서 자발적이고 아가페적 사랑을 욕망하는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도록 길인도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프랑스 아동정신분석 분야에서 가장 신뢰받고 사랑받는 실천가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다수의 책들을 저술한 돌토는 20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라캉과 더불어 프랑스 정신분석학계의 두 기둥 역할을 하였다. 돌토의 이와 같은 독보적인 위치에도 불구하고 돌토의 정신분석학과 관련하여 발표된 기독교교육 학자의 연구결과물은 현재까지 국내 및 해외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는 돌토의 저서들과 그동안 연구자가 발표한 연구결과물들을 주요 참고문헌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돌토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그 실제를 제시한 본 연구가 교육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유의미한 공헌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적 실천이 필요하다. 첫째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부모 교육, 아동 상담교육, 가정 상담교육 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각 교육 영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자료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둘째로, '인성캠프'(자아성찰, 자존감 향상 훈련), '가족 힐링 캠프'(가족 간의 의사소통 단절 해소 및 사랑의 소통 훈련) 등의 강의자료 및 교재들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기초한 기초자료가 각 실천 영역에 맞게 보다 전문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 실천의 확장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생애주기를 청소년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청소년들이 진정한 사랑의 경험 안에서 '욕망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꿈과 미래에 도전하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차원에서는, 개 교단의 교육기관에서 본 연구를 토대로 한 사랑의 교육 지도자 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기초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은 교계의 사역자 및 평신도지도자들이 자신의 내면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갈등과 분노, 쾌락과 중독, 우울증과 자살, 폭력 등으로 얼룩진 사회를 아가페적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도울 수 있다.

학문융합적 관점에서 시도한 본 연구가 학문적·실천적으로 유의미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 및 그 연계 방안이 요청 된다: 첫째로, 후속연구에서 교육과정에 '교육 방법 및 평가 영역'을 추가하여 더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본 연구가 사회 · 실천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공헌을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교육 및 일반교육을 비롯한 인문학과 연계한 융복합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융복합 분야 연구가 질적 · 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 생태계 조성에 대한 각성과 노력이 학계에 요청된다. 셋째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장려하고 있는 창의적 연구와 인재 양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국내외 연구자들이 폭넓게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

어 융합연구 협력 체제가 보다 전문화되고 활성화됨으로써 본 연구의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참 고 문 헌

김선아 (2017). F. Dolto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본 '존재의 집' 형성으로서의 기독교교육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53,** 1-31.

[Kim. S. A. (2017). A study on Christian education as 'forming the house of unconscious being' based on dolto's psychoanalytic viewpoint.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53*, 1-31.]

김선아 (2018a). 정신분석학적 기독교 신앙교육 연구-F. Dolto의『정신분석학의 위협 앞에 선 기독교 복음과 신앙』에 나타난 '욕망의 삶'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0,** 353-376.

[Kim. S. A. (2018a). A study on psychoanalytical Christian education for faith - focused on f. dolto's perspectives of 'the life of desire' in her *les ev angiles et la foi au risque de la psychoanalyse*. *Korean Journal of Chri stian Studies, 110*, 353-376.]

김선아 (2018b). 미래세대의 기독교교육을 위한 '사랑을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Homo Desiderans 이해.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62-275.

[Kim. S. A. (2018b). An understanding of 'homo desiderans' as a 'subject of loving' for Christian education of future gener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cademic Conferences of the Korean Christian Education Association(Autumn),* 262-275.]

김선아 (2019). 정신분석학적 '욕망의 주체' 이해에 기초한 사랑의 교육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59**, 335-368.

[Kim. S. A. (2019). A study on the education for love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psychoanalytic 'sujet du désir'.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9,* 335-368.]

김선아 (2020). **사랑의 교육을 지향하는 학문융합적 기독교교육**. 서울: 효일문화사.

[Kim. S. A. (2020). *Christian education toward education of love based on academic convergence research.* Seoul: Hyoil Press.]

김정준 (2021).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새 전망. **기독교교육논총, 67,**

11-44.

[Kim. J. J. (2021). New perspectives on Sunday School of Korean Church for Next Gener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7*, 11-44.]

Dolto, F. (1984). *L'image inconsciente du corps*. Paris: Seuil.

Dolto, F. (1985). *La cause des enfants*. Paris: R. Laffont.

Dolto, F. (1995). *La difficulté de vivre*. Paris: Gallimard.

Dolto, F. (1996). *Les evangiles et la foi au risque de la psychanalyse*. Paris: Gallimard.

Freud, A. (1959). *Psychoanalysis for teachers and parents*. Boston: Beacon Press.

Fromm, E. (1956). *The art of loving*. N, Y.: Harper & Row, Inc.

Fromm, E. (1969). *The sane society*. N. Y.: Fawcett World Library.

Fromm, E. (1976). *To have or to be ?* . N. Y.: Harper & Row, Inc.

Guy H. et al. 2 (ed.) (2009). *Theory and practice in child psychoanalysis : An introduction to the work of françoise dolto*. London: Karnac Books Ltd.

Hall, G. & Hivernel, F. (2009). *Theory and practice in child psychoanalysis : An introduction to the work of francoise dolto*. London: Karnac Books Ltd.

Julien, P. (1995). *Jacques lacan's return to freud: The real, the symbolic, and the imaginary*. N. Y.: NYU Press.

Lacan, J. (2013). *On the names-of-the-father*. (Trans. by Fink, B.). Cambridge: Polity Press.

Ledoux, M. (2003). **프랑수아즈 돌토 - 그의 삶과 사상**. 표원경 역. 서울: 도서출판 숲 (원저 1991 출판).

[Ledoux, M. (1995). *Introduction a l'oeuvre de françoise dolto*. Paris: Payot & Rivages.]

Miller, J. A. (ed.) (1981). Le séminaire. Livre III. Les psychoses, 1955-56. Paris

: Seuil.

Nasio, J. D. et al. 5 (ed.) (1994). Introduction aux oeuvre de Freud, Ferenzi, Gr oddeck, Klein, Winnicott, Dolto, Lacan. Paris: Payot & Rivages.

Rouhiainen, L. (2018). *Artificial intelligence: 101 tings you must know today a bout our future*. Independently published.

Wang, J. & Nazi, B. (2020). *The future home in the 5g era: Next generation st rategies for hyper-connected living*. London: Kogan Page.

Abstract

A Study on Practical Curriculum Development of the Education for Love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Psychoanalytic 'Desire of Subject'

Sun Ah Kim

Full-time Researcher,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Group

at Hanshin University

This study is based on the research of the first year, which is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s R&D subject for middle-grade researchers. In this study, the practical curriculum development of the education for love - an according to the psychoanalytic perspectives of F. Dolto(1908-1988) - is suggested as follows. The first is ‘the reconstruction of the directions of curriculum and its specific aims in accordance with such directions.’ The reconstruction of the directions of curriculum aims at leading our future generation to live as a subject of desire through the mutual-communication of love. The second is ‘the reconstruction of the tasks of curriculum and its specific contents in accordance with such tasks.’ The reconstruction of the tasks of curriculum pursuit to help our future generation through the converting the education for love into the paradigm of desire of Agape to live as a subject of desire forming a whole personality and practicing the desire of Agape in daily life. as a source of desire. According to these aims, the reconstruction of directions of curriculum are presented as following: firstly, 'curriculum for the mutual-communication between subjects of love' and secondly, 'curriculum for the subject of desire'. The reconstruction of tasks of curriculum are like these: firstly, 'converting the education for love into the paradigm of desire of Agape', and secondly, 'forming a whole personality

through the education for love'. Thus, with respect to two specific aims in accordance with the reconstruction of directions are suggested like these: Firstly, 'constructing a subject as a speaking existence' and secondly, 'realizing the subject as the autonomous source of desire'. In the two specific contents in accordance with the reconstruction of tasks are presented as following: Firstly, 'realizing the truth of the desire of Agape'.' Secondly, 'practicing the desire of Agape in daily life.' The third is 'the reconstruction of curriculum by life cycle' are suggested. They include the fetal life, infants and preschool children life, and childhood life. In further study, it is required to contain adolescent period. It will be useful to help them to recover their self-esteem with the experience of true love, especially, out-of-school young generation overcome negative perspectives and prejudice in the society, and challenges to their dreams and future through proper utilization of the study outcome. The outcome of this study, which presented practical curriculum development of the education for love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psychoanalytic 'desire of subject' can be used as basic teaching materials for our future generations. Furthermore, the results can be used as a resource for educating ministers and lay leaders in the religious world to build capabilities to heal their inner side as well as the society that is tainted with various forms of conflict. These include general conflicts, anger, pleasure and addiction, depression and suicide, violence and murder, etc. The study outcome can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antisocial incidents against humanity that have recently been occurring in our free-semester system implemented in all middle schools across the country to be operated effectively. For example, it is possible to provide the study results as lecture and teaching materials for 'character camp' (self-examination and self-esteem improvement training) and 'family healing camp' (solution of a communication gap between family members and love communication training), which help students participate in field trip activities and career exploration activities voluntarily, independently, and creatively. Ultimately, it can visibly present the convergent research

performance by providing the study outcome as preliminary data for the development of lecture videos and materials including infant care and preschool education, parental education, family consultation education, and holistic healing education. Support from the religious world,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urgently required in order for such educational possibilities to be fulfilled both in the society and the fields of church education and to be actively linked to follow-up studies.

《 Keywords 》

psychoanalytic perspectives, subject of desire, mutual-communication of love, subject of loving, desire of Agape, whole personality, education for love, reconstruction of curriculum

- 투고접수일 : 2021년 11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12월 30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12월 30일